

일본군성노예제 교육가이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온라인 교육용



용어

"정신대? 위안부? 일본군'위안부'?
우리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 걸까?"

용어

● 일본군성노예제,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일본군'위안부')를 지칭하는 용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는 전쟁 중 비밀리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공식적 용어가 부재하였으며, 전쟁 이후에는 심지어 일본정부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은폐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의 진상이 밝혀지던 초기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동원되어 강제노역을 했던 여성들을 포괄하는 정신대(근로정신대)와 '위안부'가 혼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연구가 이뤄진 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본군'위안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안부라는 단어가 역사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작은따옴표(")를 사용하고 전쟁범죄의 주체인 일본군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 여성 폭력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주도하여 조직한 제도로서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¹

이 책에서는 성노예제 문제를 지칭할 때 제도적인 본질을 드러내고자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하지만 피해자를 지칭할 때는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944년 8월 14일 미군들과 포로수용소에 있던 일본군'위안부'들이 촬영된 사진입니다. 미군 병사들은 일본군'위안부'들에게 문서나 일본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심문을 했습니다. 사진번호 CBI-44-21636 (1944.8.14. 미 육군 164통신사진중대 A과전대 T/4 프랭크 W. 시어러 촬영) ©서울시 및 서울대학교 정진성 연구팀

¹ 정진성, 일본군성노예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3-10.

용어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기억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기억연대)는 ‘여성인권평화의 관점에서 세계시민과 함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분쟁하 여성인권 침해 및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기억하는데 앞장선다’는 사명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0년 37개 여성단체의 결의로 발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2015한일합의의 폐기를 촉구하며 2016년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2018년 통합하여 정의기억연대가 되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 캠페인을 진행하며 피해생존자 지원, 수요시위, 기림사업, 국내외 연대사업, 나비기금, 기록관리, 연구, 교육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평화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2 서울시 및 서울대학교 정진성 연구팀, 기록 기억: 일본군'위안부' 이야기, 다 들지 못한 말들, (서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대학교 정진성 연구팀, 2019), 68.

일본군성노예제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나요?

"정말 분하고 분통해서 그 말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픈지 말이 안 나와요.
그때 생각을 안해야지 하면서도
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중략)"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의 최초 공개 증언 中



일본군성노예제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나요?

● 남아있는 증거, 위안소

'일본군성노예제'란,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이 제도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하여 접령지 및 식민지 여성들을 동원해 성노예로 만든 범죄를 말합니다. 1932년 중국 상하이에 군 위안소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들과 네덜란드, 일본 여성들이 일본군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어 매일 성폭력과 구타, 고문 등의 만행에 시달렸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취업 사기, 유괴, 납치 등의 방식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일본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성병검진을 받아야 했으며, 기본적인 이동이나 생활에도 통제를 받았습니다. 일본군은 전쟁터에 위안소를 조직적으로 설치·운영했으며, 여성들의 동원 및 이송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는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자행한 인도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분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에 따르면, 위안소의 체계적 운영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는 “일본군이 위안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위안소 설치운영의 모든 측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위안소가 어떻게 합법화되고 설치되었는지도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1(좌). 폐허가 된 중국 송산 지역에서 살아남은 여성 4명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들 중 맨 오른쪽의 임신한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영심입니다. 사진번호 230147 (1944.9.3. 미 육군 164통신사진중대 이등병 찰스 H. 헛필드 촬영) ©서울시 및 서울대학교 정진성 연구팀³

그림2(우). 북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영심님이 자신이 찍힌 (사진 속 맨 오른쪽 임신한 여성)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³ 정진성, 일본군성노예제, 44-51.

⁴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Ms. Radhika Coomaraswamy,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5/85, ¶ 6, E/CN.4/1996/53/Add.1 (February 5, 1996), available from <https://undocs.org/E/CN.4/1996/53/Add.1>



일본군성노예제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나요?

- 남아있는 증거, 위안소



일본군이 작성한 상하이의 한 위안소 규정에는 “일본군의 사용만을 허가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용 시간, 요금 등의 규정이 적혀있습니다. ©아소 테츠오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은 일본군 육군 성 부관이 중국에 파견된 군 참모장들에게 1938년 3월 4일에 보낸 공문서로, 일본의 역사학자 요시미 요시아키가 발견했습니다. 이 문서는 일본군 ‘위안부’ 모집업자의 선정부터 모집에 이르는 업클 일본군이 감독,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모집 지역의 경찰도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관여, 협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시아 역사 자료 센터-일본 국립 기록원⁶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si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www.jacar.archives.go.jp

⁵ 서울시 및 서울대학교 정진성 연구팀, 기록 기억: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다 듣지 못한 말들, 126.

⁶ “Recruitment of female employees for Army brothels,”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 National Archives of Japan, accessed August 19, 2020, https://www.jacar.archives.go.jp/aj/meta/listPhoto?NO=242&DB_ID=G0000101EXTERNAL&ID=%24_ID&LANG=e&ng&image_num=242&JS_STYLE=eng&TYPE=PDF&DL_TYPE=pdf&REFCODE=C04120263400&CN=1



일본군성노예제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나요?

● 세상을 깨운 최초의 공개증언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전쟁터에 버려지거나, 범죄를 은폐하려는 일본군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던 소수의 피해자들도 위안소에서 당한 구타, 고문, 성폭력 등으로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부인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속에서 50년 가까이 침묵해야 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이화여대 윤정옥 교수가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동원을 가까스로 피했던 윤정옥 교수는 끌려간 여성들이 해방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며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옥 교수는 1988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주최한 국제세미나 ‘여성과 관광문화’에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옥 교수는 1988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여성과 관광문화 국제세미나에서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성노예제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나요?

● 세상을 깨운 최초의 공개증언

1991년 8월 14일 김학순님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면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학순님의 용기 있는 증언은 다른 피해자와 활동가, 전 세계 시민들의 마음에 공명을 일으키며 연대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생존자들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의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⁷ 세계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범죄사실을 고발하기 시작했고,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성인권·평화운동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말하기는 가부장제, 식민지배의 구조에 맞서는 #미투가 되어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깬 용기를 주었습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피해생존자들의 마음은 세계 곳곳의 전시성폭력 생존자들과 연대하는 나비기금이 되었고, 피해생존자들의 정의로운 외침은 국내외에 건립되는 평화비를 통해 기억되고 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운동은 세계적 여성인권 역사에 큰 획을 그으며 전 세계적 여성인권·평화 운동으로 거듭났습니다.



김학순님은 1991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최초로 침묵을 깨고 공개 증언에 나섰습니다. 김학순님의 용기를 기려 8월 14일은 2012년 제 11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⁷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서울: 한울, 2014).



함께 연대해요!



매주 수요일 12시,
수요시위에 온라인으로 함께해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정의연 나비레터를
구독해 활동소식을
받아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피해생존자 증언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연구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 증언집 1~5』
- 전쟁과여성인권 연구팀,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 증언집 6』

할머니
우리 할머니



한성원, 『할머니, 우리 할머니』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강성현, 『탈진실의 시대 역사부정을 묻는다』



이타가키 류우타, 김부자,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 책임』

영상 및 영화



뉴스타파 - "나의 소원은..."
김학순 할머니의 마지막 증언



영화 김복동



어폴로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더 많은 책 추천 보기